

# 2015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프로젝트(복작복작 예술로(路)만들기)

## 자문회의 결과보고

### 1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5년 4월 16일(목) 오후 4시
- 장 소 : 본관 3층 회의실
- 참석인원 : 6명
  - 시민문화팀 : 김필국 팀장, 서금슬, 최은미
  - 자문위원 : 성남문화재단 이영진 부장, 마포문화재단 송태성 팀장, 인천문화재단 정지은 과장

### 2. 회의 결과

#### ○ 사업의 방향과 내용 검토

- 사업의 목적이 주민 공동체 형성 및 유지가 아니라면, 본 활동을 통한 예술가 지원으로 생각될 수 있음. 그렇다면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
- 문화예술로 한정하지 않고 동네텃밭, 월밥상, 도시캠핑 등 다양한 소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함
- 마포의 책거리와 같이 특화된 거리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제안함
-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. 구상하고 있는 모델에 관한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임
- 타 공동체 지원 사업들과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주민과 예술가의 결합은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없음

#### ○ 사업 대상 및 선정 방법

- 현재 서울시 공동체 지원 사업 중 3년 지원 종료된 시점임. 따라서 해당 단체나 주민 중심의 동아리, 프리마켓 등 다양한 대상이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
- 예산 상황 고려하여 5~6개 정도의 단체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(장기지원)
- 서울시민으로 대상을 지정할 경우, 활동(직장)은 서울에서 하나 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 증빙문제로 참여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발생함.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
- 지역재단과 함께 공동체 또는 단체가 함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고려. 단, 재단과 민간을 경쟁시키는 공모는 지양해야함

○ 사업 운영의 방법

- 사업추진단(멘토)을 5인정도 규모로 결성하여 심의 및 컨설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, 단체와 전문가를 매칭하여 사업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방향 고려
- 사업 종료 후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중에 개최하여 사업 수행자간의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고려
- 마포의 경우 심의를 심사위원(전문가)가 진행하지 않고 공모 참여자들이 사업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평가로 선정하는 것을 논의하기도 했었음